

### 남광주변전소 부지 한전 아파트 건설 남구 도시계획 심의 통과

# 공원·도서관 기부채납 규모 큰 폭 줄었다

#### 2012년 4800㎡ 요구→올해 2991㎡…수용 배경 관심

#### 남구청 “무리한 강요 적절치 않다”…개발제한 시설 해제

광주시 남구 진월동 남광주변전소 유휴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겠다는 한국전력 사업계획(광주일보 7월 5일자 6면)의 결립들이었던 전원시설 폐지 결정이 광주시 남구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남광주변전소 인근 주민들은 “육외변전소로 지난 50년간 고통을 겪었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은 위상에 걸맞게 전체 부지를 공원화하라”고 요구했지만, 한전 측은 지난 5년간 남광주변전소 부지 활용 방안을 협의해온 남구는 “빈 땅을 계속 놀려두고 무리한 공공기여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결국 한전 측 사업 계획을 받아들였다.

특히 남구가 전원시설로 묶여 개발 제한

된 부지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한전 측이 내놓기로 한 기부채납 면적이 남구가 4년 전 요구한 면적보다 39.4%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남구는 7일, 한전 측과 남구가 남광주변전소 도시계획심의(전원시설 폐지결정) 과정에서 협의한 공공기여 규모가 적정하다는 광주시의 판단이 지난 3일 나왔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지난 7월 전원공급시설로 묶여 있는 남광주변전소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신청서를 남구에 제출하면서, 양측은 전원시설 폐지를 조건으로 본격적인 공공기여 규모에 관한 협상에 들어갔다. 그 결과 전체 개발 면적 2만9650

㎡의 10.08%인 2991㎡에 공원과 도서관을 건립해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한다는 협의안이 나왔다. 아파트 개발 부지와 연관된 곳에 2605㎡ 규모의 도로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구는 이 같은 공공기여 협의 내용을 도시계획수립 결정권한이 있는 광주시에 전달했고, 광주시도 최근 “국토교통부, 타자치단체 공공기여율과 비교한 결과 적정한 내용으로 판단된다”며 사전협의를 인정하는 공문을 남구에 보냈다.

이로써 한전 측은 광주시의 건축계획심 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 관련 행정 절차만 거치면 변전시설로 지난 50년간 묶여있던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남구가 이번에 남광주변전소 개발과 관련해 한전 측과 협의를 통해 확정된 공공기여 규모는 불과 4년 전 남구가 한전 측에 요구했던 규모보다 적지 않게 후

퇴한 것이다.

지난 2012년 4월 남구는 전체 면적의 16.8%가량인 도로 개설과 별개로 부지 내에 총 4800㎡ 규모로 도서관과 공원을 건립해 지난 50년간 변전시설로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한전 측은 당시 “공공기여 규모가 과도해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며 거절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육외화되면서 유휴부지가 된 남광주변전소 부지를 계속 방치하는 것도 남구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고,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해주는 대가로 기부채납 규모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전 측은 2017년 남광주변전소 유휴부지에 최고 23층짜리 아파트 4~5개동,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한국인 여성 선원 추행

#### 필리핀 선원 2명 구속

외국 화물선에 타고 있는 한국인 여성 선원을 강제추행하고 개인 침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필리핀 국적 외국인 선원 2명이 해경에 구속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인 20대 여성 선원 C씨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침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강제추행, 주거침입 등)로 필리핀 국적 외국인 선원 A(26)씨와 R(3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9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파나마 국적 컨테이너운반선 K호(4만급, 승선원 20명) 안에서 C씨의 목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R씨는 A씨와 공모해 C씨의 침실에 들어가 속옷 등을 뒤지는 등 침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다. 해경은 해상 특수성을 이용해 밝혀지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조사 후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어색함 풀어요” 새내기 공무원 캠프

7일 광주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기 광주 북구 새내기 공무원 디딤돌 캠프'에 참가한 신규 공무원들이 어색함을 풀기 위해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친목을 쌓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가짜 경유 32억대 유통 일당 무더기 적발

등유가 섞인 가짜 경유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가짜 경유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장모(50)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제조 원료를 공급한 선박급유 유통업자 진모(48)씨 등 6명과 가짜 경유를 판매한 이모(51)씨 등 주유소 업주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동차용 경유 판매 면허 없이 선박급유를 싣 값에 유통한 진씨와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 김모(51)씨 등 주유소

업주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가짜 경유 제조·유통에 가담한 장씨 등 6명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와 섞어 만든 가짜 경유 44만 ℓ 5억2000만원 상당을 7개 시·도의 주유소 11곳에 유통한 혐의다.

진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상급유용 경유 250만 ℓ 27억원 상당을 5개 시·도에 있는 주유소 22곳에 부가세나 법인세를 제외한 가격에 납품한 혐의를 받

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가짜 경유 생산 총액 장씨는 제조·자금·유통 등 역할을 전담하는 조직을 꾸린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유사·주유소·선박급유 유통업자로부터 경유·등유를 매입한 뒤 잠정 폐업한 영안과 전북 익산의 주유소를 임대, 정상 경유와 식별제를 제거한 난방용 등유를 8대 2의 비율로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었다. /박정욱기자 jwpark@

### “드들강 여고생 성관계 직후 숨졌다”

검증 법의학자 재판서 증언  
“물속서 숨질 때까지 목 졸려”  
성관계·살인 시간적 근접성 조명

“드들강에서 살해된 여고생은 성관계 뒤 곧바로 숨졌고, 물 속에서 숨질 때까지 목이 졸렸다.”

영구 미제 사건으로 몰릴 뻔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의 재판이 15년 만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의학자가 법정에서 “성관계와 사망 간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밝혀 이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김모(39·당시 24세)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 감정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자는 “성폭행 뒤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숨진 것으로 보인다. 즉 성관계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폭행과 사망 시점이 밀접하다”고 증언했다.

이 법의학자는 사건 기록,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는 “피해자인 A양은 물속에서 숨질 때까지 목이 졸렸다”며 “의사가 아닌 경부암박집식사가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얼굴 울혈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며, 다만 기도에는 거품으로 봐 물 속에서 경부암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속에서) 목을 조를 때 피해자의 저항흔적이 거의

없다. 저항능력이 이미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법의학자는 또 A양이 당시 생리 중이었고, A양 몸에서 발견된 체액이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인 점을 들어 성관계를 한 지 2~3분 내 목이 졸려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성관계 후 곧바로 살해됐기 때문에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성관계와 살인이 짧은 시간에 이뤄져 A양이 숨지기 전 성관계를 한 사람이 살인범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찰은 이같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모씨가 A양을 차에 태워 드들강변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곧바로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양이 당시 채팅으로 만난 여러 여성 중에 하나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는 법의학자에게 질문을 직접 던지며 자신과 이 사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A양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 체액을 검사한 국과수 조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 8월 법의학자 감정 결과, 동료 수감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를 사건 피의자로 보고 기소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나주 드들강에서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식민사학 규정’ 명예훼손 피소

#### 이덕일 역사학자 항소심 무죄

김모 명예교수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최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덕일 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

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소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김 교수의 학문적 주장에 본인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고, 비방할 목적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 소장은 지난 2014년 출간한 ‘우리안의 식민사관’에서 김 교수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식민사학이라고 규정, 김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잡담 한다며 부하직원 때리고 해고 통보한 ‘잡질 마트점장’



○~40대 마트 점장이 근무 중 잡담을 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후미진 곳으로 불러내 때리고 폭언하며 해고를 통보했다가 경찰서행.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시 서구의 한 마트 점장으로 근무 중인 A(41)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께 직원 B(35)씨를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마트 뒤편으로 불러내 목덜미 등을 수차례 때린 데 이어 “너 집에 가, 너는

해고야.”라고 폭언한 혐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가 상해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근무 태도도 좋지 않던 B씨가 근무 중 잡담하는 모습을 보고 지적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 봐야겠다’고 말하자 화가 치솟았다. 근무 태도가 현저히 나쁜 직원을 해고 통보한 것도 문제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면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평가 12억7천4백 ▶ 최저가 8억9천3백
- ★ [공장] 서구 동천동 상무자동차전문학원인근 공장일지지역 토지 1,226㎡ 건물 322.35㎡ 감평가 12억1천7백 ▶ 최저가 8억5천2백
- ★ [공장] 화순군 이양면 풍평리 농공단지내 12m도로접 토지 6,600㎡ 건물 2,579㎡ 감평가 27억5천3백 ▶ 최저가 12억3천3백
- ★ [공장] 담양읍 삼관리 토지 9,902㎡ 건물 2,921㎡ 예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평가 44억5천1백 ▶ 최저가 24억9천3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9,178㎡ 건물 5,842㎡ 장성백이사거리 인근 공장지대 감평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5억5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5,977㎡ 건물 2,122㎡ 동화사거리부근 공장지대 감평가 13억3천6백 ▶ 최저가 7억4천8백
- ★ [공장]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9,917㎡ 건물 3,989㎡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평가 35억2천7백 ▶ 최저가 19억7천5백

**투자 추천 물건**

- ★ [공장, 충전소] 광양시 진월면 진월C인근 4차선대로변 토지 12,914㎡ 공장 1,922㎡ LPG충전소 352㎡ 매매 37억5천
- ★ [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제2산업단지내 토지 6,627㎡ 건물 4,226㎡ 매매 19억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정문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상가 28억씩 교환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무인텔] 북구 유동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4천만원 이상 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
- ★ 광천동 재개발지역내 원룸 매매

**수익형 추천**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 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요양병원 허가 취득)
- ★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 6억포함) 보증금 7천 월 4백6십 매매 13억5천
- ★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대단지 토지 5,359㎡ 건물 595.4㎡ 2층공장 매매 평당 2백5십
- ★ 광주 북구 풍향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광주 남구 백운동 왕복5차선도로 버스승강장부근 5층건물 대지 527㎡ 건물 1,221㎡ 보증금 2억 월 1천만 매매 18억
- ★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건물 999㎡ 보증금 1억 월 6백5십 매매 17억

**병원, 공장 매매 및 임대 구함 / 광주 근교 토지 급 구함 /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